



저는 김승혜 수녀입니다. 언니가 네 명 있고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자이셨고 어머니는 성결교회에 다니셔서 우리는 초파일에 절에 가고 성탄절에 교회에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6.25때 아버지가 납치되신 후 외가에 피해 있으면서 서울의 공습 장면과 경복궁거리에 시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이화여고 2학년 때 <소화 데레사 자서전>을 읽고 감명을 받아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영세를 받았습니다. 갈멜회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대학 공부를 하면서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겠다는 생각에 서강대학교 3학년 때 예수회 배 바실리오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강진에 "훌륭한 여성들"이 살고 있다고 우리 수녀회를 추천하셨습니다. 그해 여름 열흘간 성요셉 여학교 수녀원에서 살아보고 따뜻한 분위기가 좋아서 입회를 결정했습니다.



1965년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들어온 후에 제 삶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우선 수련장이셨던 코르넬리아 오후리엘 수녀님입니다. 문화적응을 하고 있는 저를 이해해 주셨고 믿어 주셔서 초기 양성기를 하느님만 바라보며 커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 삶에 중요한 분은 한국공동체의 첫 지부장 이신 메리 아녜스 케어리 수녀님입니다. 종신서원을



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동아시아 교회의 토착화를 위해서 전통종교를 전공하고 싶다는 원의를 말씀드렸을 때, 그것을 하느님이 제게 주신 소명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뢰 때문에 저는 종교대화와 토착화의 일을 평생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에서 2014년까지는 총이사로, 2014년에서 2019년까지는 총장으로 수도회에 봉사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 마더 씨튼의 말씀인 "나는 모든 것을 섭리의 질서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전집 2권하, 207쪽)를 좌우명으로 삼고 평화를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I am Sister Sung Hae Kim. I have four older sisters and one younger brother. Since my father was a Buddhist and my mother, a Baptist, we grew up going to the Buddhist temple on the Buddha's Birthday and on Christmas to the Church. During the Korean War my father was taken by the communist soldiers. I remember seeing the dead bodies on the Seoul streets.

When I was a junior at Ewha Girls' High School, I was baptized as a Catholic, after reading the *Autobiography of St. Therese of Lisieux* whose life I wanted to follow. Although I did visit the Carmelite monastery once, during my college years I realized that my talent was in teaching. Therefore, I consulted Father Basil Price, a Jesuit teaching at Sogang University when I was a junior studying there concerning my vocation. He recommended the Seton Sisters



to me, saying "They are wonderful women!" I visited St. Joseph's School convent in Gangjin for ten days and was drawn by the warmth of the sisters and decided to enter.



After I join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n 1965, the person who influenced me first was Sister Cornelia O'Friel, the director of novices. She understood the difficulty of the cultural adjustment I was making and trusted me, so that

during my initial formation period I could grow, only looking up to God. The next person to whom I am so grateful is Sister Mary Agnes Carey, the first regional superior of the Korean community. When I shared with her that I wanted to major in East Asian religions for the inculturation of Christianity, she discerned that my calling was from God and supported me fully. Because of her trust in me I was able to continue my life-long commitment in interreligious dialogue and inculturation.



I am also deeply grateful for the time to serve the community as a general councilor (2008-2014) and a general superior (2014-19). Now, I am living with a peaceful heart, treasuring St. Elizabeth Seton's words

as my maxim:  
"I see all in the order of Providence."

(Collected Writings  
II: 642)

